“전통문화로 함께 즐기고 성장하는 문화쉼터 만들 것”

김갑수 국립남도국악원 제6대 원장 취임

현장 중심 전통 예술 행정 전문가
서남권 중심서 제주로 영역 확대
국악단체 지원 거점기관 역할 강화

“전통문화로 모두가 함께 즐기고 성장하는 문화쉼터로서 역할을 다 해 남도의 전통예술을 진흥시키겠습니다.”

국립남도국악원 제6대 원장에 김갑수 국립국악원 학예연구관이 취임했다.

국립남도국악원은 최근 김갑수 신임 원장이 공식 취임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김 신임 원장은 국악 연주자로 활동한 예술 현장 경험과 전통예술 분야의 행정 전문성을 두루 갖춘 인물이다. 국악 진흥과 무형유산 보존·전승 분야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전문성을 쌓아왔다.

우석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악과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전북도립국악원 관현악단에서 10년간 활동한 아쟁 연주자 출신이다.

2009년 국립국악원 장악과 학예연구사로 공직에 입문한 뒤 국립민속국악원 장악과와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국악진흥과·기획관리과 등 주요 부서를 거쳤다.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에서 국악 총괄업무를 담당했으며,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에서는 국가무형유산 전반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했다. 2021년 국립남도국악원 장악과장을 역임한 뒤 2024년부터 국립국악원 장악과 학예연구관으로 근무했다.

김 원장은 예술과 행정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국립남도국악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역할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기존 전남 서남권 중심의 활동 영역을 제주 권역까지 넓혀 남도 전통예술의 향유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해외동포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국악 연수 등을 통해 해외 국악단체를 지원하는 거점기관으로서 한류 확산에도 힘쓸 예정이다.

김갑수 원장은 “‘전통문화로 모두가 함께 즐기고 성장하는 문화쉼터’를 기관의 비전으로 삼아 국립남도국악원장으로서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면서 “전남 서남권을 넘어 제주 권역까지 활동 영역을 넓히고, 해외동포와 외국인을 위한 국악 연수 등을 통해 해외 국악단체를 지원하는 거점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04년 개원한 국립남도국악원은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에 자리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기관이다. 씻김굿과 강강술래 등 남도 전통예술의 보존·전승을 위해 토요상설공연 ‘국악이 좋다’, 국악연주단 정기·기획공연, 굿음악축제, 국악 교육 및 남도 무형문화 연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오복기자

신병철 조선대병원 교수 ‘인술헌신대상’



조선대병원 신장내과 신병철(사진) 교수가 지난달 3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글로리아웨딩 3층 비스타홀에서 열린 2026 코리아문화예술대상 및 자랑스런 한국인 시상식에서 ‘의학발전·인술헌신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 창간 7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문화예술 발전과 사회 각 분야에서 공로를 세운 인물들을 선정해 시상했다.

신병철 교수는 평소 투철한 사명감으로 의료인의 길을 걸으며 첨단 연구와 임상 혁신을 통해 난치병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대한민국 의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찾아 헌신적인 인술을 펼치고, 전문적인 건강 지식을 널리 알리며 국민 보건 향상에 힘써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병철 교수는 “의료인으로서 환자들에게 더 나은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온 시간이 뜻깊은 상으로 이어져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연구와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따뜻한 의료를 실천하며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채만 기자



시화마을 사회적협동조합, 노인일자리 수요처 간담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각화동 시화마을 사회적협동조합은 9일 “최근 북구 14개 동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요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합이 운영하는 ‘마을사업장 관리’ 사업은 어르신 150명이 마을 화단과 별자리 학습장, 실개천 등 주민자치회가 조성한 시설을 관리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올해 사업 실적을 공유하고 내년도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또 주민자치회 관계자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2027년도 사업 참여 수요를 파악했다.

조합은 오는 25일 참여 어르신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와 수요처 의견을 내년도 사업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정성껏 가꾼 사업장이 주민 모두의 쉼터가 되고 있다”며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내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윤찬웅 기자



노틀담 형제의 집-탑솔라그룹, 청소년 워크숍 성료

전남광주 지역 아동양육시설 노틀담 형제의 집은 최근 탑솔라그룹과 함께 자립 준비청년을 위한 ‘청소년 자립·성장 워크숍’을 성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태양광·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탑솔라그룹의 ‘TOPSOLAR Future Energy Project(삶의 에너지를 설계하는 청소년 성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지난 7일 열린 워크숍에는 예비 자립준비 청소년과 자립준비 청년 등 총 10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한국코치협회 인증전문코치(KPC)와 함께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삶의 가치를 찾아보며, 꿈과 실천 사항을 적은 뒤 ‘나의 꿈 선언문’을 스스로 완성했다. 워크숍 전후로는 참여자별 맞춤형 1:1 코칭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70회차의 마인드·학습·진로 코칭이 진행됐으며, 참여자들은 스스로 삶을 꾸려갈 수 있는 마음 근력과 실질적인 자립 역량을 키워가고 있다.

노틀담 형제의 집 관계자는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스스로 방향을 정하고 한 걸음씩 실천해 보는 경험”이라며 “남은 코칭 과정에서도 아이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서형우 기자



자치경찰위·북부경찰,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광주자치경찰위원회와 광주 북부경찰서는 9일 북구 솔로몬로파크를 방문한 어린이 100여 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보행 습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경찰은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너는 방법 등 교통안전 수칙을 안내하고 홍보물품을 전달했다.

양백승 광주북부경찰서장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초등학교 등하굣길에 경찰관을 집중 배치하고 있다”며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과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을 병행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찬웅 기자



담양 대덕면지사협, ‘어르신 건강 나들이’ 호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대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9일 “최근 지역 저소득 홀몸 어르신 40명을 대상으로 순창군 강천사 일원에서 ‘어르신 행복충전 건강나들이’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평소 외부 활동의 기회가 적은 어르신들에게 휴식과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웃 간 교류를 돕기 위해 추진됐다.

어르신들은 강천사 일원을 둘러보며 가을 풍경을 감상하고, 족욕 체험과 점심 식사를 함께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김태수 대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어르신들에게 일상의 걱정을 잠시 잊고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며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세심하게 살피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복지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대한적십자사, 대학RCY 교류 활동 개최

대한적십자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사는 9일 “최근 전남광주·충북·대전세종 등 3개 지사 대학 적십자청소년단(RCY) 회원들이 참여한 ‘2026년 대학RCY 지사 간 교류활동’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별 봉사활동 경험을 공유하고 지사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호남기후변화체험관을 방문해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배우고, 대나무 컵받침과 폐병뚜껑을 활용한 재활용 키링 등을 제작했다.

또 학생독립운동기념일(11월3일)을 맞아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을 관람한 순천대학교 간호학과 윤수빈·이차욱 회원이 광주학생항일운동의 역사적 배경과 의의를 발표했다.

정진아 대학적십자회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협의회 홍보부장은 “타 지역 회원들과 아이디어를 나누고 교류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지사 간 협력 방안을 공유하고 RCY 회원으로서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연상 기자



신안소방, ‘소방의날’ 기념행사 개최

신안소방서는 9일 “‘제64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숭고한 소방정신을 기리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올해 각종 재난 현장과 행정 업무에서 군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 소방 공무원들에게 몸과 마음의 휴식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직원 상호 간 자유롭게 소통하고 결속을 다지는 다채로운 화합의 장이 펼쳐졌다.

고상민 신안소방서장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밤낮없이 수고한 직원들이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길 바란다”며 “단합된 마음과 끈끈한 동료애를 바탕으로 군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양훈 기자

서해해경청, 퇴직공무원 영세선박 오염 예방 컨설팅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9일 “동절기를 맞아 해양오염사고 위험이 높은 영세 선박을 대상으로 퇴직 해양경찰관들의 전문성을 활용한 맞춤형 예방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인 ‘노하우 플러스(know-how+)’와 연계해 추진된다. 치안 현장에서 오랜 기간 전문지식과 위기 대응 노하우를 쌓은 퇴직 해양경찰관 4명이 투입돼 어선과 예인선 등 오염사고에 취약한 영세 선박 570여척에 대해 선박 특성에 맞춘 안전 컨설팅을 제공한다.

현장 점검을 통해 쓰레기가 밀려든 해안가를 선별하고 관계 기관과 수중·연안 정화 활동을 펼쳐 깨끗한 해양 생태계를 보전할 방침이다.

백학선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거친 치안 현장을 누비던 선배 경찰관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영세 선박의 오염 사고를 막는 방패막이가 될 것”이라며 “꾸준한 관심과 예방 활동을 더해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광주은행 노조, 취약계층 성금 3천만원 전달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광주 사랑의열매)는 9일 “최근 광주은행 노동조합이 임직원들과 뜻을 모아 마련한 성금 3천만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광주은행 노동조합은 지난 2004년부터 임직원 성금을 모아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3천만원까지 누적 기부액은 13억8천여만원에 달한다.

이번 성금은 광주 사랑의열매를 통해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박만 광주은행 노동조합 위원장은 “임직원들이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며 한마음으로 뜻을 모았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연상 기자



결혼

▲조재룡(전, 담양친목회장)·심은효씨 장남 창국(북광주농협 근무)군, 권성문·손혜자씨 장녀 미연양=11월21일(토) 오후6시, 광주 까사디루체 웨딩컨벤션 1층 루체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동문대로 287 062-710-4000, 010-3741-3110.